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⑳ 상강_한강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상강은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자, 이 가을의 완연한 이별의 시기이다.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가을의 끝자락

상강을 맞이하니 모든 일 그치네
매서운 날씨에 기분이 슬프도다
기러기는 새끼를 데리고 이르고
황화는 뜻을 얻어 활짝 피었네
– 상강(霜降), 채지홍 〈봉암집〉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천문학, 지리, 수학에도 능통했다는 대학자 봉암 채지홍(鳳巖 蔡之洪, 1683~1741).

근 삼백여 년 전 조선의 어느 날, 뜨겁고 치열했던 여름과 풍요의 기운 넘실대는 가을도 다 사라져 버렸다.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지는 10월의 찬바람 앞에서, 그날의 봉암은 막연한 슬픔을 마주했을 것이다.

서리가 내리다

황금빛 벼로 가득했던 들녘은 텅 비어 버리고 산천을 지키던 기러기 떼는 인사도 없이 먼 곳을 향해 떠나간다. 활개 치던 지난 계절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찬바람만이 그 빈 곳을 채우는 시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마음 있을까. 다만 냉기에도 아랑곳없이 피어난 노란 국화꽃만이 그에게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했을 일이다.

오래전 조선의 한 선비가 마주한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霜降)의 모습은 그렇게 그의 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전해진다.

상강, 서리가 내리는 시간.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에 든 이 절기는 그 이름으로 자신을 설명한다.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를 지나 더욱 차가워진 공기는 이제 이슬을 서리로 바꾸어 놓는다.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 동시에 완연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

어느 이른 아침, 솜털 같은 서리가 온 세상을 새하얗게 덮어 버린 날. 우리는 마침내 이 가을의 마지막을 걷게 될 것이다.

상강의 풍경

옛글에 남겨진 상강의 모습은 추수를 마치고 겨울 채비를 하는 농가의 분주함.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늦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공존한다.

이웃집과 힘을 합쳐 제 일 하듯 하는 것이
낟알 줍기 짚 널기와 마당 끝에 키질하기
한쪽에서 면화 트니 씨아 소리 요란하다
틀 차려 기름 짜기 이웃끼리 힘 모으세
등불 기름도 하려니와 음식도 맛이 나네
밤에는 방아 찧어 밥쌀을 마련할 때
찬 서리 긴긴 밤에 우는 아기 돌아볼까
타작 점심 하오리라 닭고기 막걸리 부족할까
새우젓 계란찌개 훌륭하게 차려 놓고
배춧국 무나물에 고춧잎 장아찌라
큰 가마솥에 안친 밥이 태반이나 부족하다
한가을 흔할 때에 나그네도 대접하나니
한동네 이웃하여 같은 들에 농사하니
수고도 나눠 하고 없는 것도 서로 도와
이때를 만났으니 즐기기도 같이 하세.
– 농가월령가, 9월령

정약용의 아들이자 '농가월령가'의 작자인 정학유가 남긴 상강의 모습은 생명력이 넘친다. 추수철 갈무리하는 손길은 바쁘지만 덕분에 밥상 위의 찬은 아직 풍성하다. 하지만 지나는 누구라도 함께 청해 밥을 먹다 보면 한 솥 가득한 밥도 금세 동이 나기 마련. 한 들녘에서 땅을 나눠 부치고 일손을 돕는 두레의 삶은 그렇게 나눔으로 이어진다.

'수고도 나누고 즐기기도 같이 하는' 모습이 이즈음의 활기를 전한다면, 옛 중국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김형수의 '농가십이월속시'는 상강 무렵 자연의 모습을 전한다.

'초목은 잎이 지고 승냥이는 산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겨울잠 자는 벌레들은 모두 땅으로 숨어드는 때'.

다가오는 혹한의 계절에 대비하는 뭇 생명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다. 생을 다한 것은 과감히 저물며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다.

무자비한 동장군의 세력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 생명은 저마다의 전쟁을 앞두고 비장함을 가슴에 새긴다.

가을의 모습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지구. 한강과 고급 주상복합건물의 마천루 사이에 작고 오래된 벽돌 건물이 하나 서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 시설로 만든 수도박물관이다. 하지만 수도박물관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깃대 하나.

주변의 무엇과도 어울리지 않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법한 낯선 모양새. 하지만 이 독특한 모습의 깃발이 바로 오늘날 뚝섬의 시작이자, 뿌리인 '둑(纛)'이다.

여느 깃발과 달리 날카로운 창끝에 붉은 실이 가득 매달린 모습의 둑기(纛旗). 이는 전쟁의 신 치우의 머리이자 군왕의 군령권, 동시에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상징이다.

이 일대는 조선 태조 이성계 시기부터 왕의 사냥터로 사용된 곳으로, 이성계는 매년 경칩과 상강이 되면 이곳에서 나라의 무운(武運)을 기원하는 둑제(纛祭)를 올렸다.

둑제는 유일하게 무관들이 주관해 지내는 제사로, 이성계는 둑제에 참석하지 않는 무관들에게 태형을 내릴 만큼 이를 중요시했다고. 그렇게 '둑기를 꽂은 섬'이라는 뜻의 '둑도' 또는 '독도'라 불리던 것이 오늘날의 뚝섬이 된 것이다.

겨울잠을 자던 땅속의 벌레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오는 경칩, 그리고 동면을 직전에 둔 상강에 둑제를 올린 것. 이는 양극의 자연, 아니 다른 두 세상을 앞두고 시행된 간절한 기원의 의식이었을 것이다.

붉은 둑기를 시작으로 뚝섬 한강공원을 향해 걷기를 삼십여 분. 윤슬이 반짝이는 한강을 따라 저 멀리 물빛 지붕의 건물이 한 채 보인다. 바로 국내 최초의 수상법당인 '한강 수상법당'이다.

두둥실 물 위에 뜬 이 낯선 법당은 '방생 법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심 도량이다. 이곳에선 누구라도 몸 묶인 물고기를 한강에 방생할 수 있어 불자들에게 알음알음 소문이 난 곳. 사람들은 이곳에서 한 생명을 구함으로써 자신을 구하고, 또 구한다.

수백 년 전 이 땅에서 자신들의 무운과 함께 나라의 평안을 기원한 옛사람들. 그리고 부러 이곳을 찾아 죽음을 목전에 둔 물고기를 강으로 살려 보내는 또 다른 그들이 있다. 시공간을 넘어 교차하는 그 마음이 어떤 시간대의 혹독한 계절도, 시련도 모두 막아 줄 수 있다면.

그리하여 가을이란 내내 황금빛 국화 향기로, 승리의 깃발로, 마침내 찾아올 순백의 세상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작가〉


상강은 벌레들이 동면에 들고, 철새는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절기다. 한강을 따라 날아가는 철새 떼의 모습.

서울 성수동 수도박물관 앞에 자리한 둑기. 뚝섬의 유래가 된 붉은 깃발 앞으로 고층 건물들이 보인다.

한강 뚝섬공원 '뚝기축제광장'에는 뚝섬과 둑기, 둑제 등의 기원을 설명한 기념비를 볼 수 있다.

언제든지 방생 기도를 할 수 있는 한강 수상법당. 시민들이 수상법당을 마주 보며 가을을 즐기고 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